

---

碩士學位論文

夏目漱石의 「こころ」論

指導教授 金 鸞 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金 秀 炫

1998年 8月

# 夏目漱石의 『こころ』論

指導教授 金 鸞 姬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제출함

1998年 6月 日

濟州大學校教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提出者 金 秀 炫



金秀炫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8年 7月 日

審査委員長\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국문초록>

## 夏目漱石의 「こころ」論

金 秀 炫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鷺 姬

夏目漱石(나쓰메소세키)는 근대 일본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일본의 근대문학을 본격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漱石의 작품 세계는 크게 전기에는 문명과 明治 시대에 대한 비판, 문명으로 인한 인간소외의 문제에서 후기에 이르러 섬세한 인간 심리묘사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파헤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漱石의 작품은 인간의 내면심리 묘사와 明治 문명에 대한 비판이라는 두 구도가 중심을 이루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明治 시대의 명암을 집요하게 추궁함과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こころ」에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시대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피상적인 것으로 끝나기 쉬운 근대화의 문제를 국민들의 내부의식에 중점을 두고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こころ」는 「彼岸過迄」、「死」과 함께 漱石의 후기 3부작으로 불리는 작품 중 마지막 작품으로서, 1914년 4월부터 8월까지 朝日신문에 연재되고 그 해 9월 책으로 간행되게 된다. 전체 작품의 구성은 上卷「先生と私」、中卷「兩親と私」、下卷「先生と遺書」의 각각

독립된 세 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세 개의 단편들은 서로 긴밀하고 논리 정연하게 연결되어, 上卷과 中卷에서 여러 복선을 깔아놓고 「先生」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다가 下卷에 이르러 모든 의문과 비밀이 풀리는 추리소설 형식을 띠고 있다.

「こころ」에는 다양한 성격의 등장 인물들을 통해 불가사의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이 잘 나타내고 있으며, 자의식에 눈뜨기 시작한 명치 지식인의 불안과 혼란이 명치 시대에 대한 비평과 맞물려 전개돼 있다.



#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II. 漱石와 문명비평	5
1. 明治시대개관	5
2. 문명비평	7
III. 에고이즘의 문제	14
IV. 죽음의 형태	24
1. 부모와 장모의 죽음	25
2. 明治천황의 崩御와 乃木장군의 殉死	28
3. 「先生」과 「K」의 죽음	31
V. 결론	38
參考文獻	41
Summary	44

# I. 서 론

夏目漱石(나쓰메소세키)는 근대 일본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 동시에 국민적 작가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漱石가 작가로서 출발하는 데에는 학창시절(東京大) 동창생들의 영향이 컸다고 알려져 있다. 동창생들 중 俳句작가인 正岡子規(마사오카시키)에 의해서는 청년시대의 고독함을 위로 받고, 거기에서 문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米山保三郎(요네야마호사부로)는 漱石의 작가로서의 기질과 개성, 본질을 통찰하고 건축가 지망생이었던 漱石를 설득하여 영문학으로 이끌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漱石는 대학재학 중 사물의 근본 이치를 따지는 학구적 자세를 보였으며 「老子の哲学」(文科大学東洋哲学論文), 「文壇に於ける平等主義の代表者ウォルト・ホイットマンの詩について」, 「英国詩人の天地山川に対する観念」, 「中学改良策」 등 학자적, 문학적 재능을 보여주는 논문을 남겼다.

漱石는 대학졸업 후 영어교사로 재직 중 국비장학생으로 영국으로 유학(1900~1902)을 가게 된다. 영국에서의 생활은 심신의 괴로움을 안겨준 나머지 신경쇠약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그러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서양인들의 모습에서 「自己本位」라는 개인주의적 윤리규범을 정립하고,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이치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 「문학론」을 집필함으로써 사상적인 전환기를 맞게 된다.

漱石의 작가로서의 활동은 귀국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의 작품세계는 대체로 3기<sup>1)</sup>로 나누어 생각된다.

제1기는 明治38년(1905)에서 朝日신문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로 작품으로서는 「坊っちゃん」, 「草枕」까지이다. 이 시기는 직업작가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다양한 실험을 가능케 한 창작집필기로서, 사회에 대한 비판과 문명비평의 확립을 통해 자기완성을 모색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고양이의 눈을

1) 1963, 「明治文学史」, 筑摩書房, p.218. 정리.

통해 인간사회를 비판하고, 풍자와 익살이 돋보이는 처녀작 『吾輩は猫である』 (1905), 현실에서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로맨틱하게 그린 『倫敦塔』 (1905), 단순하고 정직한 주인공을 통해 정직함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사회를 비평한 『坊っちゃん』 (1906), 사회부정에 대한 분노를 그린 『野分』 (1907), 非人情의 세계(세속을 초월한 세계)를 그린 俳句적 소설 『草枕』 (1906) 등의 작품이 있다.

제2기는 明治40년 朝日신문사의 사원이 되고 나서 明治43년(1910) 지병인 위궤양으로 중태에 빠지는 시기까지로 직업작가로서의 테크닉이 확립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청년기 특유의 불안과 회의가 묘사돼 있으며 그들의 청춘의 무대였던 明治사회를 문명비평의 대상으로서 날카롭게 해부하는 특색이 있다. 이 시기의 등장 인물들은 모두 高等遊民<sup>2)</sup>으로 무위도식하면서 사회와 일본의 문명,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작품으로는 다양한 등장인물을 통해 현대청년군의 성격화를 실험한 『虞美人草』 (1907), 의식의 흐름에 따른 1인칭 서술의 문체가 돋보이는 『抗夫』 (1908), 중기 삼부작으로 불리며 문명비평소설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三四郎』 (1908), 『それから』 (1909), 『門』 (1910) 등이 있다.

제3기는 明治43년 (1910)에서 죽음에 이르는 시기(1916)로 등장인물의 심리묘사에 중점을 두고 인간불행의 원인인 자아(ego)와 그 자아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한다. 근대인의 고독과 회의, 그 안에서 전개되는 자아의 투쟁을 나타낸 『疵』 (1912), 『彼岸過迄』 (1912), 『こころ』 (1914), 자전적인 소설로 타인과의 갈등 속에 나타나는 인간심리를 추구한 『道草』 (1915), 미완성의 장편 『明暗』 (1916) 등의 작품이 있다.

이상과 같은 다수의 작품을 남긴 漱石에 대해서는 작가로서의 면모뿐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도 높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漱石을 연구대상으로 한 엄청난 물량

2) 漱石작품의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하는 근대지식인이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경제적 여유속에서 학술, 예술을 애호하고, 자기분위의 입장을 취하면서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일종의 정신적 부류조아이다. 이들은 몸에 갖춘 비판력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날카롭지만 사회에서 오히려 유리된다.

의 논문과 비평서가 있다. 그리고 漱石 및 그의 작품의 전체 상을 드러내려는 작업과 병행하여 연구방법은 심리학, 정신분석학, 비교문학, 비교문화, 사상사 등으로 다양해져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하려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漱石의 많은 작품 중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작품인 「こころ」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격변기를 살아가는 인간의 심리와 고뇌가 잘 표현된 소설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포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こころ」는 「彼岸過迄」, 「死」와 함께 漱石의 후기 3부작으로 불리는 작품 중 마지막 작품으로서 1914년 4월부터 8월까지 朝日신문에 연재되고 그해 9월 책으로 간행되게 된다. 전체 작품의 구성은 이야기의 도입부로서 「先生」과 「私」가 만나는 과정 및 관계를 나타낸 「先生と私」編, 「私」와 그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과의 관계를 그린 「兩親と私」編, 결말부분으로 이야기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先生と遺書」編의 각각 독립된 세 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입부에서 이야기 전개에 필요한 인물과 배경을 설정해 놓고, 이야기의 마지막에 단서를 제시하는 추리소설 풍의 이야기 진행방식과, 각각의 독립된 단편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로 엮어져 장편소설이 되는 치밀한 구성방법은 후기 삼부작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성은 처음부터 정밀한 건축설계도에 의해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쌓아올려 건물을 만들어내는 건축과 유사하고 이것은 漱石가 젊은 시절 건축가를 지망했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또는 修善寺大患<sup>3)</sup>을 겪고 나서 건강에 자신을 잃은 漱石가 체력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기도 한다.

「こころ」의 시대적 배경은 明治에서 大正으로의 시대적 전환기이며, 당시 漱石은 修善寺大患을 겪으면서 假死상태까지 가는 개인적 전환기를 맞는다. 한 개

3) 지병이었던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1910년 8월 요양차 修善寺에 갔는데 거기서 각혈을 하고 일시적으로 죽음에 가까운 위급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사건은 漱石의 사상적인 측면이나 문학에 전환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인의 죽음으로 연호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일본이란 나라의 특수성과, 시대의 전환기와 개인적 체험에 의한 심경의 변화가 잘 나타나 있다. 한 시대의 종언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혼란과 불안, 공황상태를 가져오고, 또한 죽음의 경험은 이전의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漱石의 다양한 문제의식, 즉 明治라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문제, 또한 개인이라는 존재를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에고이즘의 문제, 죽음의 문제의 추론을 통해 『こころ』의 전체 상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 II. 漱石와 문명비평

漱石의 작품경향은 인간의 내면심리 묘사와 明治문명에 대한 비판이라는 두 개의 평행선적인 구도를 취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明治시대의 명암을 집요하게 추궁하면서,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과 심리에 미친 부정적인 면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되어 시대와 인간의 문제를 동시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일본 최초의 근대국가라고 할 수 있는 明治시대에 대해 개관해 보고 작품 속에서 시대비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 1. 明治시대 개관

明治시대는 천황이 바뀌고 단순히 연호만 바뀐 것이 아니라 쇄국체제 하에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영위하다가 최초로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 근대국가의 성립을 이뤘다는 점에서 일본 시대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明治 유신전년(1867)에 태어나 격변하는 明治와 함께 나이를 먹으며 전 생애를 보낸 漱石에게는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봉건제라는 고립된 체제 안에 있던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개국의 시대를 맞게 되는 급격한 변화 때문에 明治 시대는 그야말로 혼란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쇄국을 고수하는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서구에서 시장개척과 원료확보를 위해 해외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1853년 미국함대(黑船)의 강력한 개혁요구에 대항할 힘이 없었던 일본은 쇄국정책을 버리고 무역을 개방하고 개국을 하기에 이른다.

1867년 孝明(고메) 천황이 타계하고 젊은 明治천황이 그 뒤를 잇게 된다. 새 정부의 기본방침은 구래의 누습타파와 해외에 진출하여 국제간의 우호를 유지하

고, 외국의 선진문명을 받아들여 일본을 진흥시킨다는 5개조의 서약문을 발표한다. 明治유신은 廢藩置縣(藩을 없애고 전국에 3부 72현을 설치한 것)으로 중앙집권에 의한 자본주의제도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국민국가를 건설하려는 정치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明治천황을 구심점으로 정부가 행한 정치는 정부의 힘과 권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부국강병의 슬로건 아래 세제개혁을 단행하고, 국민계몽과 개화교육이라는 학제 아래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황실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부국 강병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권보다는 국권을 위해 추진되었으므로 국민들은 과중한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 그리고 천황의 권위와 선진문명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국민의 합의 없이 위로부터 강제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부 민중의 반발과 藩諸國에 대한 문호개방의 변화에 일부 무사들의 잇따른 반란으로 明治정부의 초기는 안정되지 못했다.

漱石의 삶도 처음부터 이러한 시대의 격변기와 부딪쳐야 했다. 幕府시대에 지방의 名主출신이었던 漱石의 집안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이 바뀐 정치체제는 名主의 권한을 뺏고 그로 인해서 漱石의 집안의 수입이 끊기게 된다. 집안의 몰락과 함께 厄日に 태어났다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했던 漱石은 다른 집의 양자로 보내지게 된다. 그 일은 漱石에게 뚜렷한 유년시절의 기억으로 각인 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種痘라는 서양의술의 도입과 함께 漱石은 평생동안 콤플렉스로 남았던 곰보자국을 지닌 채 살아야 했다. 한학을 좋아하던 漱石은 서구화의 길을 순조롭게 밟아나가기 위해 국가가 필수적으로 지정한 영어를 공부해야 했고, '國家有爲の才'(국가를 위한 재목이 된다)의 사명감과 서구의 문물을 배우고 돌아오라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漱石의 미래와 과거는 시대에 의해 결정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明治 시대의 변화는 漱石 개인 뿐 아니라 明治를 살아간 동시대인들에게도 커다란 변화와 혼란을 초래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혼란에도 불구하고 근대국가의 성립을 위한 일본의 준비는 외면상으로는 성공을 이룬 것 같았다. 특히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잇따른 승리는 중국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목격하고 서구

의 힘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일본인들에게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러일전쟁이후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明治 시대에 도취되어 자만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明治시대는 개국을 통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고 최초의 근대국가의 성립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평등, 자유 등의 근대사상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합의하에 이뤄진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희생을 강요당해야 했으며 서양을 무조건 모방한 국가조직과 법조문, 교육 정책들은 일본인들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특히 明治라는 시대가 만들어 낸 국가주의는 국민들의 자발성을 빼앗고 의식까지도 지배하려고 했으며, 서구의 문명을 도입하면서도 일본사회의 현실을 해명할 만한 사상이나 학문의 발전은 외면 당했다. 뿌리깊게 잔존해 있는 국민들의 봉건적 내부생활은 明治시대의 화려한 겉모습과 조화를 이룰 수 없었고, 유럽적 수준에 도달한 외형을 내부에서 지탱하는 생활영역에 대해서는 결코 충분한 시민성을 가질 수 없었다.<sup>4)</sup> 바로 이점이 濼石가 가장 우려한 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濼石의 문명비평이 출발한다.



明治시대는 石川啄木(이시가와다쿠보쿠)의 표현처럼 「閉塞」의 시대였다. 특히 明治말기 일본사회는 1910년 辛德秋水(고토쿠슈스이) 등에 의한 大逆事件과 1913년 동경시내의 폭동등으로 지배자층의 사상적 억압과 대탄압은 극에 달해 있었다.

大逆事件<sup>5)</sup>은 러일전쟁 후 사회정세에 대한 천황제 정부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

4) 清水幾太郎(1970), "自己本位の立場", 『夏目漱石 I』, 有精堂, p.22.

5) 일본은 러일전쟁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곤란해지면서 정부나 의회가 일부 재벌이나 군인, 관료들의 이권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에 분개하여 민주주의나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일부에서는 천황암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정부는 천황암살기도를 구실로 삼아 사회주의 운동을 뿌리 뽑기 위해 수백 명에 달하는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를 강제로 체포한다. 이 사건은 조작돼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은폐되어 있었다.

이었지만 明治라는 시대가 하나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사상과 문학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sup>6)</sup> 그리고 漱石에게도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漱石의 작품 경향은 초기 사회비판과 문명비평으로 부터 차차 후기에 이르면서 인간의 내면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국가의 사상적 억압과 탄압으로 의지 표명의 배출구가 막힌 것이 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漱石은 완전히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등을 돌린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我日本の開化」(1911)와 「私の個人主義」(1951)라는 강연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나타낸다.

猪野謙二(이시노켄지)는 漱石의 문명비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漱石は、たんに西欧文明の害毒をいう保守的な国粹主義者ではなかった。あるいは西欧近代思想とナショナリズムとの融合統一を説く、進歩的なナショナリストでさえあったのではない。漱石の独自さは、何よりもまず彼自身の内部に、明治の文明開化が内包する矛盾とその悪とをはっきりと確認しつつ、しかもこれの処理と解決とを終生の文学的なモチーフとして抱きつけてゆかねばならなかったという、まさにその一点にこそあったのではないか。<sup>7)</sup>  
(漱石은 단순히 서구문명의 폐해를 말하는 보수적인 국수주의자는 아니었다. 또한 서구근대사상과 내셔널리즘의 융합통일을 설득하는 진보적인 내셔널리스트는 더욱 아니다. 漱石의 독자성은 무엇보다도 우선 그 자신의 내부에 明治의 문명개화가 내포하는 모순과 그 악을 확실히 확인해가면서, 그것의 처리와 해결을 평생의 문학적 모티브로 삼았다는 바로 그 점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것은 시대의 힘을 절감한 漱石가 자신을 문명개화의 방관자가 아닌 희생자로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西洋の開化(即ち一般の開化)は内発的であって、日本の現代の開化は外発的であります。ここに内発的と云うのは内から自然に出て発展すると云う意味で丁度花が開くようにおのずか

6) 日本文学協会 편(1988), 『日本文学講座6. 近代小説』, 大修館書店, p.7.

7) 猪野謙二(1975), “日本の思想家・漱石”, 『夏目漱石』, 河出書房新社, p.59.

ら、花が破れて花卉が外に向うのを云い、又外発的とは外からおつかぶきった他の力で包むを得ず一種の形式を取るのを指した積なのです。もう一口説明しますと、西洋の開化は行雲流水の如く自然に動いているが、御明治維新外国と交渉を付けた以後の日本の開化は人分勝手が違います。<sup>8)</sup>

(서양의 개화-즉 일반적 개화-는 내발적이고, 현대 일본의 개화는 외발적입니다. 내발적이란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한다는 의미로 저절로 꽃봉오리가 열려 꽃잎이 밖으로 향해 꽃이 피는 것을 말하고, 외발적이란 밖에서 가해지는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종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서양의 개화는 구름이 떠다니듯,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지만 명치유신으로 외국과 교섭을 맺은 후의 일본의 개화는 사정이 매우 다릅니다.)

서구에서는 갖가지 시행착오와 풍파를 거치면서 백 년 이상 걸려 이룩해낸 개화를 일본인들은 단시일 내에 성취하기 위해서,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본질 파악과 근본원리의 추구보다는 통합적 시야가 필요한 분야를 세세하게 세분화하여 짧은 시간에 이룩하려 하였다. 그래서 절실한 체험이 배제된 피상적인 개화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을 漱石은 통찰하고 있었다. 外發的이란 漱石가 「私の個人主義」라는 강연에서 밝힌 他人本位の 자세를 말한다. 自己本位를 상실하고, 민족적 독립과 근대화를 동시에 실현하지 못한 明治시대를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の現代の開化を支配している波は西洋の潮流で其波を渡る日本人は西洋人でないのだから、新しい波が寄せる度に自分が其中で食客をして気兼ねをしている様な気持になる。 <中略> こういう開化の影響を受ける国民はどこかに空虚の感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またどこかに不満と不安の念を懐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sup>9)</sup>

(일본 현대의 개화를 지배하고 있는 파도는 서양의 조류로 그 파도를 건너는 일본인은 서양인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자신이 그 속에서 기식을 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런 개화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어딘가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딘가 불만과 불안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8) 関根栄郷, 『夏目漱石集(二)』, 筑摩書房, p.408.

9) 上掲書, p.410.

일본의 주체성을 상실한 채 피상적으로 받아들인 서구의 문명은 국민의 의식이  
나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통  
찰한 漱石의 눈에 비친 일본의 장래는 절망적이고 비관적일 뿐이다. 이렇게 漱石  
는 국가조직과 정치체제의 모순을 파헤치는 피상적인 것으로 끝나기 쉬운 근대화  
의 문제를 정신적인 근대의 확립을 이루지 못한 국민들의 내부의식에 중점을 두  
고 선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漱石은 바로 内發的인 것에 대한 열망을 작품 속에서 「私」와 「先生」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私」는 해수욕장에서 우연히 만난 「先生」을 그저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이라  
는 것에 호감을 느끼고 접근하기 시작한다. 「先生」은 高等遊民의 전형적인 모  
습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에게 받은 유산으로 무위도식하면서 지내는 「先生」의  
생활자세는 보통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결코 존경받을 만한 태도가 아니다. 그  
러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先生」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은 「私」가 다른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위엄과 학자적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다. 「先  
生」과 「私」가 만나는 과정과, 「先生」을 처음부터 무조건 추종하는 「私」의  
설정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으나 두 인물의 관계는 작품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私」는 漱石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자기 주체성이 있는 인  
물이라고 볼 수 있다.

「私」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부인의 물음에

だいちどれが善いか、何れが悪いか、自分でやってみた上でないとわからないんだから、  
選択に困るわけだと思います。<sup>10)</sup>

(우선 어느 것이 좋고 나쁜지는 스스로 해본 다음이 아니면 알 수 없기 때문  
에, 선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0) 関根栄郷, 「夏目漱石集(一)」, 筑摩書房, p.289.

라고 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한 후 결정한다는 「私」의 당당한 모습은 신세대적인 면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私」는 학교라는 제도 속에서 배우는 지식보다도 「先生」을 통해 배우는 지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것은 「先生」의 사상에 숨겨진 内發性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私の眼に映ずる先生はたしかに思想家であった。けれどもその思想家のまとめ上げた主義の裏には強い事実が織りまれているらしかった。自分と切り離された他人の事実でなくて、自分自身が痛切に味わった事実、血が熱くなったり脈が止まったりするほどの事実が、憎みまれているらしかった。<sup>11)</sup>

(내 눈에 비친 선생은 틀림없이 사상가였다. 그러나 그 사상가가 완성한 주의의 배후에는 강한 경험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다. 자기와 분리된 타인의 경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뼈저리게 맞본 경험, 피가 뜨거워지고 맥이 멎을 정도의 경험이 간직되어 있는 것 같았다.)

先生の過去が生み出した思想だから、私は重きを置くのです。二つのものを切り離したら、私にはほとんど価値のないものになります。私は魂の吹きまかれていない人形を与えられただけで、満足は出来ないのです。<sup>12)</sup>

(선생님의 과거가 만들어 낸 사상이기 때문에 저는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떼어놓는다면 저에게는 거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저는 영혼이 없는 인형을 받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私」는 경험 없이 무조건 수용된 사상이란 생명이 없는 것, 영혼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급하게 「先生」의 과거를 파헤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순수한 탐구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 존경하는 「先生」의 사상을 배우려고 하는 「私」는 외관에 사로잡혀 본질을 망각하는 인물이 아니다.

「こころ」에서 「私」가 「先生」에게 이끌리게 된 것이 책을 통한 간접지식

11) 上掲書, p.273.

12) 上掲書, p.287.

이 아닌 직접경험에서 나온 사상 때문이라는 설정은 明治 시대의 外發的 개화가 갖지 못한 귀중한 内發的사상 즉 독립적인 태도의 표출<sup>13)</sup>을 내비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생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싶어하는 「私」에게 인간불신으로 가득 차 있던 「先生」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게 된다.

私<sup>14)</sup>の過去は私だけの経験だから、私だけの所有と言ってもきつかえないでしょう。それを人に興えないで死ぬのは惜しいとも言われるでしょう。(中略)私は何千万といる日本人のうちで、ただあなただけに、私の過去を物語りたいのです。あなたは眞面目だから、あなたは眞面目に人生そのものから生きた教訓を得たいと言ったから。<sup>15)</sup>

(내 과거는 나만의 경험이기에 때문에 나만의 소유라고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것을 남에게 주지 않고 죽는 것을 아깝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중략> 나는 몇 천만이나 되는 일본인 중에서 오직 당신에게 내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성실하기 때문에. 당신은 인생 그 자체로부터 산 교훈을 얻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先生」의 고백은 고백성사와 같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경험이 없는 「私」에게 자신의 경험을 대신 알려줌으로서 자신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라는 아버지와 같은 염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私」는 젊은 시절의 자신보다는 성숙한 면모를 갖고 있다는 신뢰감에서 온 것이다. 「先生」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임시변통으로 돈을 주고 빌려 온 옷'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은 임시적으로 빌려 온 서양의 옷을 입은 채 자만심에 차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돌려줘야 할 옷이었다.

13) 小泉浩一郎(1985), "漱石「心」の根底", 「夏目漱石Ⅲ」, 有精堂, p.211.

14) 「先生と遺書」는 「こころ」의 下卷으로서 「先生」이 자신의 과거를 유서형식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下卷의 「私」는 上卷과 中卷의 「私」가 아니라 「先生」을 가리킨다.

15) 上掲書, p.311.

다른 사람의 옷을 빌려 입은 것과 같은 어색함과 완전한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불안감을 漱石은 영국 유학에서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漱石은 서양인 및 서양문화에 대한 대등한 자각이라는 내서넨한 의식을 포함하고 있는<sup>16)</sup> 자기본위의 태도를 발견하고 나서 이전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시킬만한 자신감을 얻었다.



---

16) 桶谷秀昭(1975), "淋しい「明治の精神」—「こころ」", 「文芸読本 夏目漱石」, 河出書房新社, p.78.

### Ⅲ. 에고이즘의 문제

明治 시대는 최초의 근대사회라는 점 외에 최초로 근대적 자의식에 눈뜬 시대였는데 의의가 있다. 자기억제의 윤리와 입신양명에 큰 뜻을 품고,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의 그늘에서 봉건적 신분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던 일본인들에게 근대화는 자기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 존재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할 만한 사상은 아직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서구의 근대 정신인 자유, 독립, 평등의 개념이 도입되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전이지만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봉건제 속에서 억압돼 있던 자기존재를 찾기 위해 투쟁하면서도 明治라는 국가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소외되고 배제되어야 하는 슬픈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漱石도 또한 개인의 욕구보다는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하에 항상 국가와 개인의 문제를 연결시켜 생각했던 사람이다. 인간의 가치는 어느 정도 완전하게 공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유학의 세계관 속에서 자란 漱石<sup>17)</sup>은 영국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근대적인 내적 삶에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개인의 가치를 최상에 두면서도 타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에고이즘이 아니라, 타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의무와 책임을 지는 에고이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거기에서 출발하여 자기본위라는 사상을 정립하게 된다.

漱石은 大正 3년 「私の個人主義」라는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기본위를 정의 내리고 있다.

第一に自己の個性の發展を仕遂げようと思うならば、同時に他人の個性も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事。第二に自己の所有している權力を使用しようと思うならば、それに附隨している義務というものを心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事。第三に自己の金力を示そうと願う

17) 江藤 淳(1975), "夏目漱石小伝", 『文芸読本 夏目漱石』, 河出書房新社, p.27.

なら、それに伴う責任を重じ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事。18)

(첫째, 자기개성의 발전을 이루려고 한다면, 동시에 타인의 개성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 둘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려면, 그에 부수하고 있는 의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 셋째, 자기의 금력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동반하는 책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漱石은 타인의 존재를 존중하는데 일차적 의미를 두고 권리와 의무, 책임이라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런 에고이즘의 경향을 소피스트, 키레네학파, 에피쿠로스학파, 흄즈, 슈티르너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토마스 흄즈<sup>19)</sup>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보존의 욕구가 강해서 그 필요성에 의해 사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는 인간의 이기주의의 힘이 서로 돕고 공존하고 견제하면서 이뤄지며, 그 속에서 사회에 유리한 이기주의와 해를 끼치는 이기주의의 형식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 동시에 자기를 최상의 위치에 두는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를 최상의 위치에 두는 에고이즘은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때는 개인주의로,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때는 이기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둘 다 개인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고 개인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지만 이기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과도하게 존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타인을 돌아볼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개인주의의 극단화가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양심과 이성을 갖추고, 자아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내적으로 성숙된 인간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타인을 파괴하지 않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漱石은 극단적으로 작용할 에고이즘을 우려하여

もし人格のないものが無暗に個性を發展しようとする、他を妨害する、権力をを用いよ

18) 関根栄郷(1970), 『夏目漱石集(二)』, 筑摩書房, p.422.

19) \_\_\_\_\_(1961), 『世界の 人思想』, 철문출판사.

うとすると、濫用に流れる、金力を使おうとすれば、社會の腐敗をもたらす。20)  
(만약 인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개성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면 남용하게 되며, 금력을 사용하려고 하면 사회의 부패를 초래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부와 명예가 보장될 학습원생들에게 그들의 권력과 지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당부하고 있다.

漱石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구세계에서 터득한 에고이즘의 윤리에도 자신의 편견이 개입된 금력, 권력이 포함된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漱石의 짧은 생의 경험과 소수의 부유층 자녀들인 학습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며 이후 그들에게 주어질 금력과 권력을 바로 쓸 것을 호소하는 것이 연설요지라고 볼 때는 오직 漱石개인만의 윤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설 끝 부분에 자신의 주장이 수증이 되는지를 염려하며, 이해가 안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타인에게 자기의 윤리를 강요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漱石은 사상가로서 자신의 사상을 세상에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先生」이 자신의 과거경험을 통해서 「私」가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 것처럼 漱石도 자신의 인생경험과 영국에서의 생활을 토대로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전하려고 할뿐이다. 그리고 '자기본위라는 말을 내 것으로 하고 나서 매우 강해졌다'고 자신의 입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자기본위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漱石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끊임없이 인정하려는 데서 오는 인간의 외로움은 당연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私は他の存在をそれほど認めている、即ち他に夫丈の自由を與へているのです。だから向うの氣が進まないのに、いくら私が汚辱を感じるような事があっても決して助力は頼めないのです。其所が個人主義の淋しさです。21)

20) 関根榮郷(1970), 「夏目漱石集(二)」, 筑摩書房, p.422.

21) 上掲書, p.424.

(나는 타인의 존재를 그만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에게 견고한 자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아무리 모욕을 느끼는 일이 있어도 결코 도움은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개인주의의 외로움입니다.)

개인에게 자유가 주어진 만큼 타인에게도 그 만큼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것은 자유에 해당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漱石가 자기분위의 생활을 위해서는 수양을 통한 인격수련이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일 것이다. 자유는 좋지만 책임은 회피하려고 한다면, 긍정적인 개인주의가 아닌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방향으로 빗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 사회에서는 충분히 용인되고 있었던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당시 明治인들에게는 승인될 수도 승인되어서도 안되었다. 당시 자유라는 말에는 지금 처럼 긍정적인 용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 질서에 대한 반역><sup>22)</sup>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개인주의적 자유라는 것이 아직 낯선 明治시대에 혼자 개인주의를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난관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가의 가치가 최상에 있던 明治시대와는 달리 大正 시대는 개인의 가치가 인정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문학경향에 있어서도 明治시대가 국가와 개인의 문제를 연관시켜서 다룬 것에 비해 大正 시대는 주로 국가를 떠나서 개인자아의 문제가 중심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明治시대보다는 大正 시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私」의 태도는 「先生」 등의 다른 인물과는 다른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

私は先生を研究する氣で、その家へ出入りをするのではなかった。私はただそのままにしてうちすぎた。今考えるとその時の私の態度は、私の生活のうちでむしろ尊むべきもの一つであった。<sup>23)</sup>

(나는 선생을 연구할 마음으로 그 집에 드나든 것은 아니었다. 나는 단지 그대

22) 高木 文(1994), "「こころ」の論点", 『漱石作品の内と外』, 和泉書院, p.210.

23) 関根栄郷, 『夏目漱石集(二)』, 筑摩書房, p.265.

로 두고 지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의 내 태도는 나의 생활 중에서 오히려 존중해야 할 것의 하나였다.)

「私」의 태도란 바로 漱石의 자기본위의 태도이다. 만약 「私」가 「先生」의 과거를 추궁하고 그의 생활 속으로 억지로 들어가려고 했다면 「先生」이 「私」를 믿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私」가 그 당시 자신의 태도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신세대에게는 개인주의의 윤리가 어느 정도 통용돼 있고 그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생활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私」는 「先生」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그의 과거를 존중하는 입장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구세대인 「先生」은 그렇지 못했다. 漱石은 「私の個人主義」라는 강연에서

近頃自我とか自覺とか唱えていくら自分の勝手な眞似をしても構わないという符徴に使うようですが其中には甚だ怪しいのが澤山あります。彼等は自分の自我をあくまで尊重するような事を言いながら他人の自我に至っては毫も認めていないのです。いやしくも公平の眼を具し正義の觀念を持つ以上は、自分の幸福のために自分の個性を發展して行くと同時に、其自由を他人にも與えなければ濟まん事だと私は信じて疑わないのです。<sup>24)</sup>

(요즘 자아나 자각이니 주장하면서 아무리 제멋대로 행동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는 상당히 모순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자아를 존중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타인의 자아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공평한 눈으로 정의의 관념을 갖는 이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개성을 발전해 가는 것과 동시에, 그 자유를 타인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 바로 이 점이 「先生」을 통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先生」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아가 남에게 침범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척도로 「K」의 내면에 너무 깊이 파고드는 실수를 범한다. 그로 인해 「先生」과 「K」의 불행이 시작된다. 「先生」은 漱石가 가장 경멸했던 것 중의 하나인 금력을 가진 자로 등장한다. 「先生」은 먼저 자기의 유산을

24) 関根栄郷(1970), 『夏目漱石集(二)』, p.421.

가로챌 숙부에 의해 인간 전체를 불신하게 되는 염세적 인생관을 결정짓게 된다. 그러나 최소한 자기 자신만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K」를 자신의 생활 속으로 억지로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先生」의 인생관은 오히려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에게 너무 충실한 사람은 부정적인 예고이즘으로 향하기 쉽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주위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先生」은 「K」의 자아를 뺏고 이것을 침범하는 곳에서<sup>25)</sup>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인생전체를 죄의식으로 몰고 가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결국은 타인에게도 자유를 주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도 거부하면서 의무와 책임도 지지 않는 고독한 인간의 길을 걷게 된다.

眞宗스님의 아들인 「K」는 정신주의자, 구도자적인 모습을 하면서 항상 精進이란 말을 쓰며, 자기를 과도하게 억제하는 생활을 하는 고집스럽고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묘사돼 있다. 불경뿐 아니라 성서, 코란까지 읽으면서 옛 성인들의 말들만 머리에 가득 차 있는 「K」는 「先生」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교정돼야 할 인간으로 보였다. 그리고 근대의 자유로움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先生」에게 「K」의 인격주의적 정진의 모습은 어둡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先生」이 '당시의 자신은 지금보다 더 구습의 노예였다'고 고백한 것을 생각해 보면, 「先生」은 외면적으로 근대의 물결을 받아들이면서도 봉건적 내면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は私より強い決心を有している男でした。勉強も私の倍ぐらいはしたでしょう。そのうえ持って生まれた頭の質が私よりもずっとよかったです。〈中略〉私には平生から何をしてもKに及ばないという自覚があったくらいです。<sup>26)</sup>

(K는 나보다 결심이 강한 사나이였습니다. 공부도 나의 배쯤은 했을 겁니다. 게다가 타고난 머리도 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중략> 나에게서는 평소부터 무엇을 해도 K를 따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25) 清水幾太郎(1970), "自己本位の立場", 「夏目漱石 I」, 有精堂, p.232~233.

26) 関根栄郷, 「夏目漱石集(一)」, 筑摩書房, p.330.

今から思うと私の周囲にいた人間はみんな妙でした。女に関して立ち入った話などをするものは一人もありませんでした。なかには話す種をもたないものもだいぶいたでしょうが、たといもっていても黙っているのがふつうのようでした。比較的自由的な空気を呼吸している今のあなたがたから見たら、さだめし變に思われるでしょう。27)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당시 내 주위 사람들은 모두 묘했습니다. 여자에 관해서 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개중에는 이야기할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겠지만, 설사 가지고 있어도 잠자코 있는 것이 보통인 것 같았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 지금의 당신들이 본다면 틀림없이 이상하게 생각될 겁니다.)

「K」의 정진의 자세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K」에 대한 열등감의 반증일 것이다. 그리고 「先生」이 젊었을 때의 사회는 자유로운 연애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오직 자기 발전을 위해 학문에 정진하는 일을 최대의 가치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その時私はしきりに人間らしいという言葉を使いました。Kはこの人間らしいという言葉のうちに、私が自分の弱點のすべてを隠していると言うのです。28)

(그때 나는 계속 인간답다는 말을 썼습니다. K는 이 인간답다는 말속에 내가 자기 자신의 약점 전부를 숨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先生」의 약점이란 '구습의 노예'로 뿌리깊은 봉건적 내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인간답다는 말로 합리화시키려는 것이다.

私は何をおいても、このさい彼を人間らしくするのが第一だと考えたのです。〈中略〉私は彼を人間らしくする第一の手段として、まず異性のそばに彼をすわらせる方法を講じたのです。そうしてそこから出る空気に彼をさらしたうえさびつきかかった彼の血液を新しくしようと試みたのです。29)

27) 上掲書, p.335.

28) 上掲書, p.337.

29) 上掲書, p.332.

(나는 만사 제쳐놓고 그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나는 그를 인간답게 만들 첫 번째 수단으로서 우선 이성 옆에 그를 앉  
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공기를 그에게 맞게 한 다음  
에 녹슬기 시작한 그의 혈액을 새롭게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先生」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인간다움의 기준을 「K」에게 끼워 맞추려 한  
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시즈」와 「K」는 점점 가까워진다. 그러나 자신  
이 몰래 사랑하고 있던 하숙집 딸 「시즈」와 「K」의 사이를 의심하게 되면서,  
다급해진 「先生」은 「K」보다 먼저 「시즈」에 대한 사랑을 「시즈」의 어머니  
에게 고백한다. 「先生」과 「시즈」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된 후 「K」는 자살을  
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불신하고 자신만을 믿고 있었던 「先生」은 자신  
에게 환멸을 느끼고 자신을 지탱하고 있던 자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무너지면  
서 갈등하게 된다.

‘윤리적으로 약점’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先生」은 “보통스님  
보다 훨씬 스님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의리가 있다는 점에서 무사와 비슷  
한 점”이 있는 「K」의 결백함과 윤리적 순백함에 대비되는 자신의 모습에 대  
해 수치심을 느낀다. 그래서 더욱 「K」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살아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カラやカラスと同じとき。よごれたのを用いるくらいなら、いっそもじめから色のつい  
たものを使うが好い。白ければ純白でなくっちゃ。30)  
(칼라나 커피스와 마찬가지로. 더러워진 것을 쓸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색깔  
이 있는 것을 쓰는 게 나아. 회다면 순백이어야 해.)

서재를 항상 정결하게 정리하고 식탁 위의 소품 등도 금방 세탁한 것처럼 새하  
얀 것만을 고집하는 「先生」의 습관은 내적으로 갖추지 못한 순백함을 외적인 것  
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인도 순백의 상태로 있기를 원한다.

---

30) 上掲書, p.288.

私はただ妻の記憶に暗黒な一點を印するに忍びなかったから打ち明けなかったのです。純白なものに一雫の印氣でも容赦なく振り掛けるのは、私にとって大変な苦痛だったのだと解釋して下さい。31)

(나는 단지 아내의 기억에 암흑의 한 점을 차마 남길 수 없었기 때문에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순백한 것에 한 방울의 잉크라도 끼얹는 것은 나에게서는 대단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혼자서 괴로워하는 「先生」을 지켜보면서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부인은 「先生」과 같은 무게의 고통을 짊어진 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先生」이 아내를 위해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자신의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先生」의 의도와는 달리 남편과 과거를 공유할 수 없는 부인은 함께 사는 동안도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

「先生」은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자신의 과거에 얽매어 있었다. 자기를 살린다는 에고이즘으로 「K」를 자살로 이끌게 했다고 자책하면서도 자기를 살리기 위해 부인의 일생을 불행하게 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私」는 「先生」의 과거를 통해서 「先生」의 비열한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私」는 타인의 과거와 사상을 상대화 시켜 바라볼 수 있고 자아개념에 대해 익숙한 세대였기 때문에,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는 자기보존의 욕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こころ」 시작 부분에서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선생이라고 부르고 싶어진다'는 장면을 통해 세월이 지나고 「先生」의 과거를 알고 난 후에도 존경심을 갖고 '先生'이란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인간 일반의 에고이즘을 끝까지 부정하고, 부인을 걱정하면서도 자살을 한 「先生」은 마지막까지 타인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漱石의 自己本位는 '자기를 주로 하는 사상'이다. 그러나 자기가 아닌 타인에

---

31) 上掲書, p.358.

제도 타인의 자기가 주가 되는 것이다. 자아가 범람하고 남용되는 明治 시대에  
자의식에 눈뜨기 시작한 明治인들에게 조심스런 경고를 하고 있으며 그것을 「先  
生」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 IV. 죽음의 형태

『こころ』에는 등장 인물들의 죽음이 많이 나타나 있다. 병으로 인한 「先生」의 부모와 장모의 죽음, 明治천황의 崩御와 「先生」과 「K」의 자살, 乃木(노기)장군의 殉死이다. 죽음의 소설이라고 불릴 정도로 죽음이 다수 표현되어 있는 것은 漱石가 1910년 修善寺大患이라는 가사상태에 빠졌던 사건과, 다음해 겪은 딸ひな子(히나코)의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관념이 漱石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漱石의 작품에는 고통스럽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 많다. 그러나 『こころ』 이전의 작품에는 등장인물의 죽음을 암시하면서도 그들이 자살을 택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癡」의 一郎(이치로)는 인간불신으로 인한 회의 끝에 「死ぬか、気が違うか、宗教に入るか」의 문제에 직면하지만 자살을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漱石의 경우, 불행한 유년시절 및 결혼생활, 작가로서 유명해지고 난 후 겪은 양부와의 갈등, 귀국 후 닥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그의 생은 매우 우울하고 고통스러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자살이라는 형태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지 않았고 오히려 치열하게 삶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漱石는 자살 예찬론자도 아니며, 자살의 미덕을 주장하는 편도 아니었던 것 같다.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긴 경험은 삶과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결과 인생관의 변화와 자기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전환기를 가져온다. 등장 인물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삶에 대한 집착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漱石가 假死상태와 딸의 죽음을 통해서 삶에 대한 집요함보다는 관조적인 자세로 변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품 속의 죽음들이 모두 『こころ』에 직접적인 영향과 작품의 주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의 삶에 대한 탐구의 자세를 버리고 나서 漱石가 죽음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것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장에서는 「先生」의 가족인 부모와 장모의 죽음, 明治 시대의 상징적 인물인 明治 천황과 노기장군의 죽음, 明治 지식인의 상징적 인물인 先生과 K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先生」에게 미친 영향과 漱石의 사상, 시대적 의미 등을 알아보겠다.

## 1. 부모와 장모의 죽음

어린아이가 内的, 外的으로 완전한 성인이 되는 시기가 되면 비로소 부모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다. 부모의 충분한 보호 아래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에 대해 알고 나서 독립된 인격체가 됐을 때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先生」이 20세도 되기 전 부모는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동시에 죽게 된다. 갑작스럽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시에 잃는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으로 인격형성에 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私は二人のあいだにできたたった一人の男の子でした。家には相當の財産があったので、むしろ鷹揚に育てられました。私は自分の過去を顧みて、あの時兩親が死なずにいてくれたなら、少なくとも父か母かどっちか、片方でいいから生きていてくれたなら、私はあの鷹揚な氣分を今まで持ち続けることができたろうにと思います。<sup>32)</sup>

(나는 두 분 사이의 단 하나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에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너그럽고 대범하게 자랐습니다. 나는 내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 때 부모가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아버지나 어머니 중 어느 한쪽이라도 좋으니까 살아 계셨더라면, 그 너그럽고 대범한 성격을 지금까지 계속 지니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또 분별도 없었던” 당시의 「先生」에게 간접적인 지식이나 분별력을 키워줄 부모가 곁에 있었다라면 인생의 실패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식은 「K」의 성격을 해석하는 데도 적용하고 있다.

---

32) 上掲書, p.311.

Kは母のない男でした。彼の性格の一面はたしかに繼母に育てられた結果ともみることが出来るようです。33)

(K에게는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그의 성격의 일면은 틀림없이 계모 밑에서 자란 결과였을 겁니다.)

「先生」은 자신의 성격의 모순점을 이야기하고 「K」의 성격도 세상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난 성격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것을 부모의 부재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부모의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漱石의 가족해체 경험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漱石은 어린 시절 「K」처럼 양자로 들어갔다가 양부모의 이혼으로 생가로 다시 돌아온 일이 있었다. 그러나 친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던 어머니도 어린 나이(14세)에 사망했기 때문에 친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애정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안은 채 살아갔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혈연공동체가 붕괴 돼 가는 사회에서 가족간의 관계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

私は突然死んだ父や母が、鈍い私の目を洗って、急に世の中がはっきり見えるようにしてくれたのではないかと疑いました。34)

(나는 갑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둔한 내 눈을 씻어서 갑자기 세상이 똑똑히 보이도록 해준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先生」은 부모가 신임하고 있었던 숙부가 자신을 배신한 것을 알아차리고 나서, “내 세계는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고 그 당시 자신의 정신적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부모가 있었을 때 몰랐던 어두운 현실을 목격한 후 자신의 가치관을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습득한 것처럼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사고방식에 유연성을 갖추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편협한 사고로

33) 上掲書, p.328.

34) 上掲書, p.315.

정립시켜 버린 인간불신의 가치관은 결국 오류를 범하게 된다.

「先生」은 「K」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한 달에 한 번씩 무덤에 가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술과 책에 빠져 보기도 했지만 그것은 자신을 더욱 염세적으로 만들게 했다고 고백한다. 그러던 중 장모가 병에 걸리게 되고, 「先生」은 병에 걸린 장모에게 헌신을 다해 간호를 한다.

これは病人自身のためでもありますし、また愛する妻のためでもありましたが、もっと大きな意味からいうと人間のためでした。〈中略〉私は罪滅ぼしとでも名づけなければならない一種の氣分に支配されていたのです。35)

(이것은 환자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며,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의미로 말하면 인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중략> 나는 속죄와 같은 기분에 지배되었습니다.)

「先生」은 장모를 돌보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 잊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느끼려고 했으며, 자신의 에고이즘에 대한 속죄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장모가 죽은 후에도 이제까지 괴로움을 주었던 아내에게 헌신적으로 대한다.

妻の母の亡くなったあと、私はできるだけ妻を親切に取り扱ってやりました。ただ當人を愛していたからばかりではありません。私の親切には個人を離れてもっと廣い背景があったようです。ちょうど妻の母の看護をしたと同じ意味で、私の心は動いたらしいのです。36)

(장모가 돌아가신 후에 나는 가능한 한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단지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친절에는 개인을 떠나서 더 넓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장모의 간호를 한 것과 같은 의미로 내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35) 上掲書, p.359.

36) 上掲書, p.360.

「先生」은 에고이즘에서 벗어나 커다란 인류애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속죄의 노력도 결국은 허사였다. 아내를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연결시켜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랑은 자기애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자기를 완전히 잊을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불신하면서도 자신과 과거에 집착하는 「先生」은 기대했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었고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죽은 셈치고” 살아가는 자학의 길로 들어선다. 「先生」은 지극히 보편적인 인간의 본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추구하려고 했던 神의 사랑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진정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된다.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쩌면 神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른다.

漱石은 자신의 딸이 애꾸눈이 되어 갑자기 나타난다 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漱石이 추구하려 했던 사랑이 「先生」이 들어가려 했던 불타의 사랑이고 신의 사랑이며 하늘의 사랑이었다.<sup>37)</sup> 그러나 딸의 죽음을 직접 경험하고 漱石은 「先生」과 같은 좌절을 느낀 것이 아닐까. 하지만 漱石은 갈등하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고 인간으로서 베풀 수 있는 사랑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을 장모의 죽음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 2. 明治 천황의 崩御와 乃木 (노기) 장군의 殉死

明治 천황과 노기장군은 明治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당시 明治 천황과 노기장군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이들의 죽음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상징, 정신적 지주로서 상징되는 천황의 죽

37) 中島隆之(1975), “私の個人主義”, 『文芸読本 夏目漱石』, p.208.

음과 천황의 장례식 날 부인과 함께 割腹자살을 한 노기장군의 殉死<sup>38)</sup>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私」의 아버지는 천황에 대해 충성심과 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지니고 있는明治 시대의 평범한 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천황의 崩御소식을 접하고 아버지는 과도할 정도로 비극적인 감흥을 나타낸다,

崩御の報知が傳えられた時、父はその新聞を手にして、“ああ、ああ”と言った。“ああ、ああ、天子さまもとうとうおかくれになる。おれも…”。<sup>39)</sup>  
(천황의 붕어소식이 전해졌을 때 아버지는 그 신문을 손에 들고 “아, 아.” 라고 하였다. “아, 아, 천자님도 마침내 돌아가셨다. 나도…”)

乃木大將にすまない。じつに面目次第がない。いえ私もすぐおあとから。<sup>40)</sup>  
(노기장군에게 미안하다. 정말 면목이 없다. 아니, 나도 곧 뒤따라가겠다.)

아버지는 자기를 표현하지 못한 채 신적 존재인 천황에 존속되어 있는 미물로써 개인을 인식했을 것이다. 그래서 ‘천자님’인 천황이 죽은 뒤 자신이 계속 살아 있다는데 죄의식을 느낀다. 「こころ」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이 직접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점점 쇠약해져 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죽음을 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뒤를 따르겠다는 말을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죽음도 일종의 殉死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私」는 ‘그 무렵의 신문은 실제로 시골 사람들에게나 날마다 기다려지는 기사 뿐이었다’라고 회상한다. 천황의 병세와 함께 신문에 모든 신경을 쏟고 있는 아버지의 순박하고 단순한 듯 보이는 천황에 대한 충성심과는 대조적으로 그런 화제를 시골 사람들만이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는 「私」의 모습은 아버지 세

38) 봉건시대의 일본 武士들은 追腹(おいはら) - 배를 갈라 주인의 뒤를 따른다 - 를 명예로운 의식으로 생각했으며, 만약 자살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살아남았다는 의식으로 수치심을 느껴야 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殉死는 유능한 신하를 잃는다는 등의 폐단이 생기면서 幕府에서는 1633년 殉死를 금지시킨다.

39) 関根栄郷, 『夏目漱石集(二)』, 筑摩書房, p.297.

40) 上掲書, p.307.

대와는 대조적이다. 「私」에게는 천황 개인의 죽음 자체는 슬픈 것이라 해도 아버지와 같이 천황과 죽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볼 수 없다.

中卷에서 볼 수 있는 「私」의 반응을 통해서 「先生」의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先生」과 「私」는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근대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로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明治 천황의 붕어소식은 「先生」에게도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先生」이 비극적으로 생각한 것은 천황의 죽음이 아니라 明治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다. 특히 「先生」은 노기장군의 순사와 부인과 동반 자살한 형태에 대해 비판적으로 쓰고 있다.

私は殉死という言葉をほとんど忘れていました。平生使う必要のない字だから、記憶の底に沈んだまま、腐れかけていたものとみえます。41)

(나는 순사라는 말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쓸 필요가 없는 글자였기 때문에 기억의 밑바닥에 가라앉은 채로 썩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妻にすべてを打ち明けることのできないくらいな私ですから、自分の運命の犠牲として、妻の天壽を奪うなどという手荒な所作は、考えてさえ恐しかったです。私に私の宿命があるとおり、妻には妻の廻り合せがあります。二人を一束にして火にくべるのは、無理という点から見ても、痛ましい極端としか私には思えませんでした。42)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가 없는 나이기 때문에 내 운명의 희생으로서 아내의 천수를 뺏는 따위의 난폭한 짓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웠습니다. 나에게 나의 운명이 있는 것처럼, 아내에게는 아내의 운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한데 묶어서 불에 태우는 것은 너무 비참한 일이라고 밖에 나에게서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先生」에게 殉死는 이미 '오래된 필요 없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부인과 같이 자살한 행위도 부부관계를 봉건적 주종관계로 생각한데서 비롯된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난폭한 짓'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先生」이 금

41) 上掲書, p.361.

42) 上掲書, p.361.

력의 우월성을 갖고 「K」를 자기에서 종속시키려 했던 행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노기장군의 죽음에 비판하면서도 「先生」이 충격을 받고 공감을 느낀 것은 “35년 동안 죽자, 죽자고 생각하면서 죽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긴 세월이었다. 그것은 「K」의 죽음 이후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이제까지 생명을 이어 온 자신의 괴로운 과거이다. 「先生」은 자신보다 긴 세월 동안 죄의식을 풍화시키지 못한 채 결국 자살을 행한 노기장군<sup>43)</sup>에게서 죄의식을 안은 채 살아갈 앞으로 남은 세월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노기 장군의 순사는 「先生」이 자살을 결행하게 되는 간접적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こころ」는 「先生」의 자살로 결말을 맺는다. 그러나 단순히 한 개인의 과거 고백과 자신의 죄에 대한 단죄의 이야기로 전개되던 「こころ」는 이야기 결말부에서 「先生」이 明治정신을 이야기함으로써 시대적 자살로 주제가 확대된다.

### 3. 「先生」과 「K」의 죽음

「先生」과 「K」는 오랜 친구 사이면서도 정신적인 교류가 불가능했다. 그런 관계를 ‘두 사람은 오직 직선적으로 앞으로 뻗어 나가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한다. 두 사람은 끝없이 나아가도 맞닿을 수 없는 평행선을 그리면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이것은 ‘성격상의 상당한 차이’와 함께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先生」과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K」의 환경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こころ」의 인물들이 모두 세대간의 차이가 있는 데 비해서, 유일하게 두 사람은 같은 세대로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교육을 받은 인물로 등장한다. 자기를 확립하는 것과 동시에 혈연관계를 믿고, 자기를 확립하는 것이 동시에 國家有用의 인재가 되는 길이라는 확신<sup>44)</sup>을 갖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43) 朴裕河, “「こころ」の悲劇—「先生」や「K」はなぜ死んだか—”, 『日本文学』(Vol.42), p.40.

44) 深江浩(1981), “後期三部作にみられる知識人の相貌”, 『漱石長篇小説の世界』, 桜風社, p.159.

시대와 교육의 영향으로 두 사람의 외형은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 내면은 어쩔 수 없이 같은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Kと私は二人で同じ間にいました。山で生捕られた動物が、檻の中で抱き合いながら、外をにらめるようなものでしたろう。二人は東京と東京の人をおそれました。それでいて六疊の間の中では、天下を睥睨するようなことを言っていたのです。しかし我々はまじめでした。我々はじっさい偉くなるつもりでいたのです。ことにKは強かったのです。寺に生まれた彼は、常に精進という言葉を使いました。そうして彼の行動動作はことごとくこの精進の一語で形容されるように、私には見えたのです。私は心のうちで常にKを畏敬していました。<sup>45)</sup>

(K와 나는 한 방에 있었습니다. 산에서 생포된 동물이 우리 속에서 서로 껴안 으면서 밖을 노려보는 것 같았을 겁니다. 두 사람은 도쿄와 도쿄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다미 여섯 장 넓이의 방안에서는 천하를 노려보며 기세를 보이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실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훌륭하게 될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K는 특히 강했습니다. 절에서 태어난 그는 항상 정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거지는 모두 이 정진이란 한 마디로 형용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항상 K를 외경하고 있었습니다.)

道のためにはすべてを犠牲にすべきものだというのが彼の第一信条なのですから、攝欲や禁欲はもちろん、たとえ欲を離れた戀そのものでも道の妨害になるのです。<sup>46)</sup>

(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K의 제1 신조였기 때문에 섭욕과 금욕은 물론, 육욕을 떠난 사랑 그 자체로도 K에게는 도의 방해가 됩니다.)

도학자적이고 구도자적이었던 「K」는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 이렇게 하여 자기를 넘은 보다 큰 것을 지향하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sup>47)</sup> 윤리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K」가 고집과 인내심이 있었다면 「先生」은 그런 「K」의 면모를 지니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K」의 자기 파괴적인 정진의 모습을 비인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비판한다.

45) 関根栄郷, 『夏目漱石集(一)』, 筑摩書房, p.326.

46) 上掲書, p.346.

47) 佐々木雅彦(1980), “「こころ」-父親の死”, 『夏目漱石必携』, No5, 学灯社, p.48.

私はその人に對して、ほとんど信仰に近い愛をもっていたのです。〈中略〉本當の愛は宗教心とそう違っ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堅く信じているのです。48)

(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거의 신앙에 가까운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진정한 사랑은 종교심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K」와 같이 정신 우위적인 관념을 갖고 있던 「先生」은 사랑에 있어서도 종교적인 숭고한 사랑을 원한다. 그러나 「시즈」가 「K」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先生」의 내면에 질투라는 감정이 끼여들고, 거기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후 「先生」은 자신의 모습에 수치심을 느낀다. 「先生」은 자기 자신을 '자기 품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육에서 얻은 자존심'의 소유자이며 윤리적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만은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격의 절대를 믿은 그가 느낀 것은 인격의 타락<sup>49)</sup>이었다.

「K」도 「先生」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K」는 의사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의사가 되기 위한 의학 공부를 해야 했다. 그러나 양부모를 속이고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던 당시 「K」는 그 사실을 양부모에게 고백하고, 그 이후 養家와 生家로부터 동시에 의결 당하는 큰 아픔을 맛보게 된다. 「K」가 정신적 갈등을 겪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사건 이후였을 것이다.

경제적인 지원도 완전히 끊긴 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K」의 상황을 「先生」은 이해하고 있었고 그를 도와주려고 한다.

私が孤獨の感にたえなかつた自分の境遇を顧みると、親友の彼を、同じ孤獨の境遇に置くのは、私にとって忍びない事でした。一步進んで、より孤獨な境遇に突き落すのはなおいやでした。50)

48) 関根栄郷, 『夏目漱石集(二)』, 筑摩書房, p.322.

49) 小倉脩 (1989), "「こころ」論—先生の死をめぐる—", 『夏目漱石ウィリアム・ジェームズ受容の 周辺』, 有精堂, p.214.

50) 関根栄郷, 『夏目漱石集(二)』, 筑摩書房, p.331.

(내가 고독감에 견디지 못했던 과거의 나를 생각해 보니, 그를 나와 같은 고독한 처지에 두는 일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더 고독한 처지로 떨어뜨리는 것은 더욱 싫었습니다.)

그러나 「K」의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先生」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신적인 도움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자신 있던 금력으로 도와주는 것뿐이었다.

佛教の教義で養われた彼は、衣食住についてとかくのぜい澤をいうのをあたかも不道德のように考えていました。51)

(불교 교리로 양육된 그는 의식주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치스러운 소리를 하는 것을 마치 부도덕한 일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절제와 자기 억제의 윤리에 생활하던 「K」는 금전적 곤란을 겪게 되면서 '자기만이 세상의 불행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자기 미래에 가로놓인 광명이 차차 멀어져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초조해 하는 모습을 보인다.

何か御祝いを上げたいが、私は金がないから上げる事が出来ません。52)

(뭔가 축하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돈이 없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先生」과 「시즈」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된 후 「시즈」에게 한 「K」의 말속에서 「K」의 정열과 각오에 포함돼 있는 현실인식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극도의 자기억제는 신경쇠약을 불러일으키고, 「K」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다. 금욕주의적인 자신이 현실적인 문제로 괴로워한다는 것과 「시즈」에 대한 연애감정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을 것이다.

「K」는 자기가 지향하는 절대적인 관념을 고수하지 못하고 뜻을 둔 이념이 흔들린다는 것은 나약함, 의지박약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先生」에게 그것

51) 上掲書, p.330.

52) 上掲書, p.351.

을 말한다는 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모순에 빠지면서 「K」는 「先生」을 통해 배출구를 찾으려 했다.

Kの口にした昔の人とは、むろん英雄でもなければ豪傑でもないのです。靈のために肉をしいたげたり、道のためにからだをむちうったりした、いわゆる難行苦行の人をさすのです。Kは私に彼がどのくらいそのために苦しんでいるかわからないのが、いかにも残念だと明言しました。53)

(K가 말한 옛날 사람들이란 물론 영웅도 아니며 호걸도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 육체를 확대하거나, 도를 위해 몸을 채찍질하는, 소위 어렵고 고된 수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K는 나에게 자기가 얼마나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대꾸했습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면서 내면적 갈등과 괴로움을 언뜻 내비친 「K」의 고뇌를 「先生」은 위로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하여 「K」를 비판하기까지 한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두꺼운 벽을 갖고 있었고 「先生」과 「K」의 관계는 그저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방을 가로지르고 있는 칸막이는 정신적인 벽을 상징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 후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先生」에게 괴로운 것은 세상에서의 소외가 아니었다. 가장 가까운 부인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고 용서를 받고 싶지만 인간적인 의사소통이 안되는 고통이었다. 「K」처럼 「先生」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알리고 싶지 않으면서도 부인에게 이해 받고 싶어했다. 고독의 늪에 빠져 있던 「先生」의 모습은 「先生」에게 다가서려 하면서도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기를 거부하던 「K」의 모습과 겹쳐진다.

私は寂寞でした。どこからも切り離されて世の中になった一人で住んでいるような氣のしたことよくありました。同時に私はKの死因をくり返しくり返し考えたのです。その當座は頭がただ戀の一字で支配されていたせいでもありましたが、私の觀察はむしろ簡單でしかも直線的でした。Kは正しく失戀のために死んだものとすぐきめてしまったのです。しかし

53) 『』掲書, p.337.

だんだんおちついた氣分で、同じ現象に向ってみると、そうたやすくは解決がつかないように思われてきました。現實と理想の衝突、それでもまだ不十分でした。私はしまいにKが私のようにたった一人で寂しくてしかたがなくなった結果、急に處決したのではなからうかと疑がいたしました。そうしてまたぞっとしたのです。私もKの歩いた道をKと同じようにたどっているのだという予覺が、おりおり風のように私の胸を横ざりはじめたからです。<sup>54)</sup>  
(나는 적막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분리되어서 세상에 혼자만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동시에 나는 K의 사인을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는 머리 속이 사랑이란 단어로만 지배당하고 있었던 탓도 있지만, 나의 관찰은 오히려 간단하고 게다가 직선적이었습니다. K는 틀림없이 실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금방 결론지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침착한 기분으로 같은 현상을 대하고 보니 그렇게 쉽사리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충돌, 그것으로도 아직 불충분했습니다. 결국 나는 K가 나처럼 혼자라는 기분에 너무 외로운 나머지 갑자기 자살을 결행한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싹해졌습니다. 나도 K가 걸은 길을 K와 똑같이 더듬어 가고 있는 것이라는 예감이 이때금 바람처럼 가로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운명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先生」과 「K」의 자살은 과도한 신념을 품고 있던 자기와 자기내면의 격차에서 온 수치심과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온 외로움으로 그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고풍한 유교도덕에 연결되는 수치심의 의식이 개인적 감정의 관철 그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고<sup>55)</sup>, 다양화, 다원화의 근대화사회에서 자신의 사상을 상대화 시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そのころは覺醒とか新しい生活とかいう文字のまだない時分でした。しかしKが古い自分をさりと投げ出して、一意に新しい方角へ走りださなかつたのは、現代人の考えが彼に欠けていたからのではないのです。彼には投げ出すことのできない尊い過去があつたからです。<sup>56)</sup>

(그 당시는 각성이나 새로운 생활이나 하는 인식이 거의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

54) 上掲書, p.359.

55) 猪野謙二.(1975), "日本の思想家・漱石", 『夏目漱石』, 河出書房新社, p.65.

56) 関根栄郷, 『夏目漱石集(一)』, 筑摩書房, p. 347.

렇지만 K가 낡은 자기 자신을 미련 없이 내팽개치고 새로운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현대적인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내팽개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K」는 ‘자유와 독립과 개인주의로 가득 찬 현대’를 긍정하면서도, 明治에 융화되지 못했다. 明治의 근대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낡은 것을 짓밟으며 나아갔듯이, 「K」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세월이 흘러 「K」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자각한 「先生」은 자신의 죽음을 「K」의 죽음과 중첩시켜 놓고 있다.

「先生」과 「K」의 자살은 전근대적인 모순을 남긴 채 근대화를 추진해 가는 왜곡된 明治시대에 자신의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지식인이 취할 수 있었던 최후의 행위<sup>57)</sup>였다.

그러나 明治 시대의 종언과 함께 한 「先生」의 자살은 明治에 대한 진혼곡은 아닐 것이다.

私は今自分で自分の心臓を破って、その血をあなたの顔に浴びせかけようとしているのです。私の鼓動がとまった時、あなたの胸に新しい命が宿まることができるなら満足です。<sup>58)</sup>  
(나는 지금 스스로 심장을 찢어서, 그 피를 당신 얼굴에 끼얹으려 하고 있습니다. 내 고동이 멎었을 때, 당신 가슴에 새로운 목숨이 생겨날 수가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明治의 종언과 함께 생을 마감한 「先生」은 明治의 죽음의 의미를 「私」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사상적, 정신적 영향을 받은 「私」라는 신세대를 통해서 明治의 소생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明治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漱石의 소망이었을 것이다.

57) 上掲書, P. 205.

58) 関根栄郷, 「夏目漱石集(一)」, 筑摩書房, p. 311.

## V. 결 론

이상으로 후기 삼부작 중 마지막 작품인 「こころ」에 나타난 문명비평과 에고이즘의 문제를 주축으로 살펴보았다. 등장인물의 섬세한 내면 묘사를 통해서 漱石은 비평의 대상으로서의 明治와 그 시대의 문명을 외측에서 강하게 나타내기보다는 내측에서 동시대인들의 심리적인 갈등을 통해서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도도한 근대화 물결을 위태롭게 타고 있는 「先生」과 「K」의 절망적인 표정이나 자조의 자세가 일본의 현실에 대한 절실한 비판이 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こころ」에 나타난 漱石의 시대비평의 가장 기본적 자세는 内發性 추구였다. 「我日本の開化」이란 강연에서 漱石은 주체성을 잃어버린 채 모방에 급급한 일본의 현실과 外發的인 개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内發的 자세의 추구라고 주장한다. 「こころ」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경험해 본 후 선택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인물인 「私」와 뼈저린 과거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사상을 정립시키게 된 「先生」이란 인물을 통해서 漱石의 시대비평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私の個人主義」라는 강연에서 밝힌 바 있는 국가적 독립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自己本位の 입장에서 그 경향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에고이즘의 문제에서는 「こころ」의 「先生」의 과거 고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숙부에게 배반을 당하고 금력과 인간에 대해 불신에 빠진 「先生」은 자신은 다른 인간들과는 다르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先生」은 자신의 이해타산을 위해 「K」를 배신하게 된다. 여기에서 근대적 개념의 에고이즘의 극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私の個人主義」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았다.

「先生」은 유년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의 변화를 부모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설명한다. 어린 시절 부모의 부재로 인해 맞닥뜨리게 된 어두운 현실과 그것을 혼자서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과정에서 정립된 인간불신의 가치관

과 성격은 작품 속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나 있다.

「K」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先生」은 속죄의 의미로 병에 걸린 장모를 헌신적으로 간호한다. 그것을 개인에 대한 사랑을 벗어난 더 큰 의미의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로 끝났고 장모의 죽음은 인간의 본능적인 에고이즘이라는 약점을 각인 시켜 주는 것이었다.

明治 천황과 노기장군의 순사는 明治 시대의 종언을 효과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을 대하는 「先生」과 「私」, 「私」의 아버지의 반응을 각각 보여 줌으로서 신·구세대와 서민층과 지식인층의 국가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先生」과 「K」의 죽음의 동기는 표면적인 자기와 내면적인 자아의 충돌과 격차에서 오는 갈등과 수치심,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온 고독감으로 살피보았다. 개인적인 죽음으로 보이던 「先生」과 「K」의 자살은 「先生」이 明治 정신을 위해 순사하면서 시대적 죽음으로서 의미가 확대된다. 시대를 순조롭게 적응하지 못한 「先生」과 「K」의 죽음은 明治시대에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지식인층의 비극이었으며, 明治의 모순과 혼란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새로운 明治 시대가 재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漱石의 생각이 투영돼 있었다.

인간은 사춘기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성숙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신체적 변화를 겪고 자아인식을 하게 되면서 내면의 다양한 혼란을 겪는다. 그러한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서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이 明治 시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낡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시기에는 혼란이 필연적으로 야기되고, 그에 대한 비판과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이 적절히 공존 시켜 나갈 수 있을 때 더욱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다.

과도기적 혼란기였던 明治 시대를 보내면서 漱石은 어두운 미래가 아닌 밝은 미래를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다. 그것은 「私」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私」는 작품의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신세대로서 성실하고 자신의 前世代로부터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슬기로운 인물로 설정돼 있다. 그리고 「私」는 자기의

가치를 알 수 있고 내면의 진실과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사상을 상대화 시켜서 볼 수 있는 인물이다. 이처럼 구시대의 인물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私」가 이끌어갈 시대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こころ』가 大正 3년(1914)에 쓰여진 것을 본다면 漱石의 새 시대에 대한 기대가 지대했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漱石은 이전까지 집요하게 추구해 왔던 시대적 문제를 「私」를 포함한 신세대에게 맡겨 놓은 것 같다. 시대문제라는 사명감에서 벗어나 자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홀가분해진 漱石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漱石의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던明治시대의 모순과 문명으로 인한 인간의 정신적 갈등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며 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漱石은 앞으로 시대를 살아갈 신세대에 대한 희망을 갖고 앞으로 살아 나갈 모든 인간들이 영원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시대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 參 考 文 獻

### 1. 韓國文獻

(單 冊)

- 朴勳丹(1983), 『근대일본문학』, 螢雪出版社.  
최재철(1995), 『일본문학의 이해』, 민음사.  
李商燮(1976),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한용환, 『소설의 이론』, 청암 출판사.  
정진태 편(1997), 『문학용어사전』, 보성 출판사.  
白尚昌 역(1974), 『自我를 잃어버린 我人』, 文藝出版社.  
\_\_\_\_\_ (1961), 『세계의 大思想』, 철문출판사.

(論 文)

- 尹聖珍(1994), 『夏目漱石의 倫理觀 考察 - 「心」의 「死의 倫理」를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최해수(1997), 『나쓰메소오세키(夏目漱石) 「고코로」(心)小考 - 「先生」의性格考察을 中心 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成洛榮(1992), 『夏目漱石의 「心」における倫理觀』, 한국외국어대학교교육대학원.  
閔美淑(1986), 『夏目漱石におけるエゴイズムの考察 - 「こころ」における我執と死の倫理を中心に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2. 東洋文獻

(텍스트)

- 夏目漱石(1970), 夏目漱石集(一), 筑摩書房.

(単行本)

- 相原和邦(1980), 『漱石文学』, 塙書房.
- 深江 浩(1981), 『漱石長篇小説の世界』, 桜楓社.
- 宮井一郎(1984), 『漱石文学の全貌』(下巻), 国書刊行会.
- 高木 文(1994), 『漱石作品の内と外』, 和泉書院.
- 玉井敬之(1978), 『夏目漱石論』, 桜楓社.
- 瀬沼茂樹(1987), 『夏目漱石』, 東京大学出版社.
- 柄谷行人(1992), 『漱石論集成』, 第三文明社.
- 江藤 淳(1970), 『漱石とその時代 第一部』, 新潮社.
- 小倉脩三(1989), 『夏目漱石ウィリアム・ジェームズ受容の周辺』, 有精堂.
- 中村光夫(1963), 『明治文学史』, 筑摩書房.
- 紅三竹平 外(1972), 『明治の文学』(近代文学史1), 有斐閣.
- 鶴岡 巳(1975), 『シンポジウム日本文学14. 夏目漱石』, 学生社.
- 紅野敏郎 外(1969), 『近代小説研究作品・資料』, 秀英出版.
- 三好行雄(1972), 『日本の近代文学』, 塙書房.
- 日本文学協会 編(1988), 『日本文学講座6. 近代小説』, 大修館書店.
- 田中 彰(1976), 『日本の歴史』, 小学館.
- 山崎房五郎(1961), 『明治東京史話』, 桃源社.
- 相良 亨(1984), 『日本人の死生観』, ペリカン社.

(論文)

- 斎藤英雄, “初出稿『心 「先生」の遺書』(一～百十)を読む”, 国文学 編(1994), 『夏目漱石の全小説を読む』, 学灯社.
- 中村光夫(1944), “文明開化の性格”, 『夏目漱石 I』, 有精堂.
- 吉田六郎(1942), “自己本位の立場”, 『文芸読本 夏目漱石』, 河出書房新社.
- 清水幾太郎(1935), “自己本位の立場”, 『夏目漱石 I』, 有精堂.
- 佐々木雅彦(1980), “『こころ』—父親の死”, 竹盛天雄 編(1980), 『別冊国文学・No.5 夏目漱石必携』, 学灯社.
- 朴 裕河(1993), “『こころ』の悲劇—「先生」や「K」はなぜ死んだか”, 『日本文学』(Vol. 42).

- 桶谷秀昭(1970), "淋しい「明治の精神」—「こころ」", 『文芸読本 夏目漱石』,河出書房新社.
- 小泉浩一郎(1969), "漱石「心」の根底—「明治の終焉」の設定をめぐる", 『夏目漱石Ⅲ』, 有精堂.
- 伊沢元美(1963), "明治の精神と近代文学—夏目漱石「こころ」をめぐる", 『夏目漱石Ⅰ』, 有精堂.
- 江藤 淳(1956), "「心」— 所謂「漱石の微笑」", 『日本作家Ⅰ 夏目漱石』, 小学館.
- 江藤 淳(1966), "夏目漱石小伝 ", 『文芸読本 夏目漱石』, 河出書房新社.
- 平野 謙(1956), "暗い漱石(一, 二)", 『夏目漱石Ⅱ』, 有精堂.
- 猪野謙二 (1948), "漱石における自我の自覚と崩壊", 『夏目漱石Ⅱ』, 有精堂 .



---

<Summary>

**A Study On *Kokoro*, a Novel by *Natsumeseoki***

**Kim, Su-hyon**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 Kim, Nan-Hee**

*Natsumeseoki*, a representative writer of Japanese modern literature, is considered to have elevated Japanese modern literature up into the substantial level. His works range over various subjects such as criticism on civilization and the *Maji* age, men estranged from civilization, men's inner nature or delicate psyche and so on. In other words, *Natsumeseoki*'s literature, supported by two pillars of the psychological description of man's inner nature and the criticism on the *Maji* civilization, discloses the light and dark of the *Maji* period clearly,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contemporary human beings.

It is *Kokoro* among other works that confronts these subjects most strenuously. Generally speaking, the subjects of modernization could be dealt with superficially in the act of surveying the dawn of modernization. The writer, however, views these themes in connection with the subconsciousness and psyche of contemporary people.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October, 1998.

---

*Kokoro*, the last of his later day's trilogy including *The Beyond* and *The Passerby*, was serialized in the *Asahi Shimbung* from April to August in 1914, and published in September of the same year. It consists of three independent short stories such as *Teacher and Me*, *Parents and Me*, and *Teacher and Will*, all of which are tightly and logically knit together. The first two stories throw the readers into the whirlpool of puzzles with the coming events foreshadowed, and then the last one reveals all the mysteries. It might as well be regarded as a mystery story in so far as its form is concerned.

*Kokoro* describes the elusive and whimsical human minds through various types of characters, and criticizes the civilization of the *Maji* period when the intelligentsia, with their self-consciousness budding, were plunged into anxiety and confusion.

